

고양 사랑방

고양시민 및 소식지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 **원고종류**
수필·공트·체험수기·기행문·독후감·사진·만화 등 제한 없음
- **원고분량**
A4 용지 1장 이내(시·만화 등은 적정 분량)
- **원고마감**
수시 접수
* 채택되신 분은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낼 곳**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 **E-mail** gysosic@korea.kr
-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goyang.go.kr (늘푸른고양/시정소식지)
-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yangcity

8 월 호 독 자 후 기



박호연

고양시에 다양한 하천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즐겁게 즐기고 깨끗하게 이용하겠습니다.



전경숙

고양시에서 20년을 살았지만 '고양'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이번 기회에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8 월 호 정 책 퀴 즈 당첨 자

김영숙, 김청, 심경옥, 임지윤

1.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든든한 조력자 '○○○○○○○' 특히 최근에는 3D 프린터 등을 활용해서 제품 제작부터 영상 촬영까지 원스톱 진행이 가능한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청년창업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중이다.
2. '○○○○○'는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 문제의 발견과 해결 모색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 통로 역할 역시 수행해야 한다.

정답 : 28청춘창업소, 주민자치회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

글: 최서영(덕양구)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났다. 연초만 하더라도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라도 되어있을 줄 알았다.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들에 과감히 X자를 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버킷리스트 옆에 하나둘씩 변명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었다. 오늘도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며 생각했다. '아, 역시...그 원고는 책으로 안 내는 게 좋겠어. 이리다가 글들이 먼지처럼 쌓여가기만 하면 어찌지. 컴퓨터 파일 안에, 휴대폰 메모장에 수북하게 쌓인 글들이 정말 먼지처럼 쌓여가기만 하면 어찌지.' 그러다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코너를 돌면서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글이 나아지지 않으면 뭐 어때. 글이 쌓이기만 하는 게 뭐 어때서. 다만 글쓰기의 동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동네 고양시에는 참새방앗간이라는 인문학공동체가 있다. 참새방앗간 '토요글쓰기반'에 들어가 함께 글을 쓴지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다. 글쓰기 선생님을 비롯해 토요글쓰기 반에는 일곱 명의 문우들이 있다. 이제는 얼굴을 마주하면 절로 미소가 머금어지는 사이가 되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누구누구쌤'이라 부르는 문우들은 토요일마다 모여 글 같은 말들을 숨도 안 쉬고 서로의 얼굴에 뱉어낸다. 선생님들의 사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쌤, 방금 하신 그 말씀 글로 쓰시면 되겠네요"라는 말이 절로 뱉어진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글을 써야 하는데", "그래도 글을 써야 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아련하게 고개를 떨군다. 선생님들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았다.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글을 쓰고 싶어 하신다. 글을 쓰고 싶어 토요일 아침마다 젖은 머리로, 맨 얼굴로, 잠옷차림으로 화상 회의에 출석한다. 글을 쓰고 싶어서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서점으로 오신다. 서점으로 오는 길 걸음걸이마저 '글' 그 자체인 선생님들이다. '글쓰기'를 통해 매번 자기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또다시 글을

쓰고 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 기쁨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다시는 글을 쓰지 않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으며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글쓰기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느 날 회사 앞에 나무를 보며 동료가 말했다. "꽃 진짜 예쁘다. 언제 저렇게 폼이?" 땅만 보고 걸어서 잘 몰랐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한여름에도 볼 수 있구나. 절로 감탄이 나왔다. 찾아보니 이 나무의 이름은 '배롱나무'라고 한다. 배롱나무는 여름에 '목백일홍'이라는 꽃을 피운다. 이렇게 뜨거운 한여름 햇볕에도 오래오래 꽃을 피우고 가을을 맞는다. 배롱나무는 꽃이 피기 전에 어떤 꽃을 피울지 가늠하기 어려운 나무 중 하나라고 한다. 어제는 분명 없었는데 오늘 보면 선홍빛 찬란한 꽃을 피우고 오래오래 그곳에 피어있다. 무엇이 나와 어떤 아름다움을 선사할지, 기대조차 않고 있어서 꽃 피운 후에는 그 감동이 배가 되는 배롱나무. 감동이 배가 된다 하여 배롱나무일까? 내 주변엔 목백일홍 같은 사람들 투성이다. 그렇게 오래오래 자신의 계절을 버티며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들. 내겐 글쓰기반 선생님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덕분에 난 더 오래 나의 계절을 느낄 수 있다. 꽃이 지고 추운 겨울이 와도, 여기저기 화려한 꽃들이 피는 봄이 와도, 우리의 뜨거운 여름을 기다리게 만드는 건 목백일홍을 닮은 그들 덕분이다. 나도 글쓰기를 통해서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걸지도 모른다. 단숨에 내려 적는 한 줄 문장이었다면 글을 쓴다는 행위가 이렇게 끔찍하며 힘들어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삶도 미완이고, 삶이 미완이기에 글도 당연히 미완일 수밖에 없어서 글로 삶을 채워나가고 삶으로 글을 채워나간다. 조금씩 넘어갈 수 있다는 행복을 이미 알아버린 우리는 글쓰기를 멈출 수가 없다.